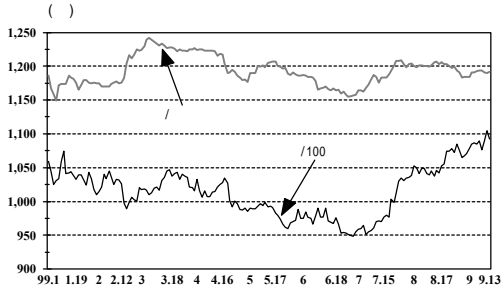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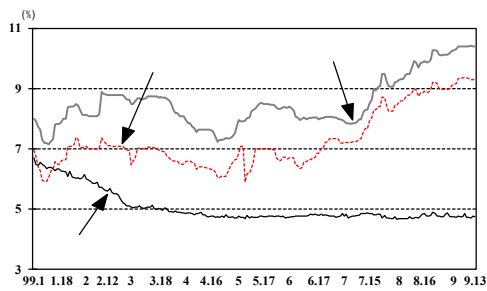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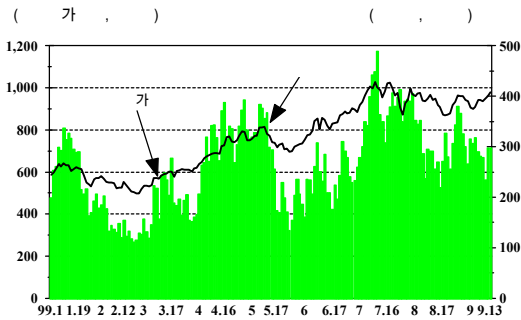
□ 國內 金融 指標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의 정책적 매수세와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기업 신용한도 축소 동향으로 인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함



금리는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에 따라 채권 거래가 부진했으나 은행권의 국고채 및 투신사보유 채권 매수세로 보험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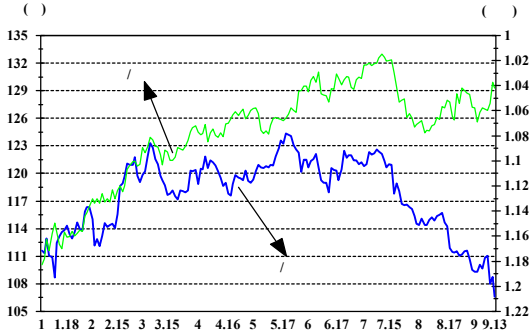


주가는 일본 경기 회복세에 힘입은 엔화 강세와 반도체 D램 가격 급등 등의 호재로 인해 상승세로 돌아섬. 금리 안정세와 북미고위급회담 타결 등도 주가 상승에 일조해 금주초 980포인트대에 진입

		1997	1998				1999				
			Q1	Q2	Q3	Q4	Q1	6	7	8	9.13
통화 증가율(%)	본원통화	-5.7	-4.7	-7.5	-13.2	-6.6	7.2	13.3	15.4	14.4	-
	M2	21.5	13.9	18.4	21.4	22.0	33.6	27.4	24.4	24.9	-
금리 (%)	RP 매각금리 (1~4일물)	35.1	23.0	14.5	7.10	6.55	4.85	4.75	-	-	4.70
	콜금리(1일)	35.00	22.10	14.32	7.09	6.53	4.88	4.85	4.67	4.74	4.75
	CP 수익률(91일)	35.00	22.20	16.30	10.50	7.90	6.90	6.40	7.54	8.23	7.83
	회사채 수익률(3년)	28.98	18.28	16.00	11.90	8.00	8.10	7.96	9.23	10.26	10.41
원/달러 환율		1,415.2	1,378.8	1,385.2	1,373.6	1,207.8	1,224.7	1,157.6	1,204.0	1,184.6	1,191.8
종합주가지수		376.31	481.04	297.88	310.32	562.46	618.98	883.00	969.72	937.88	980.91

주: 1) 통화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평균기준. 98년 1~4분기, 99년 1분기는 분기말월 기준  
2) 금리, 환율 및 주가는 기말 기준임

□ 國際 金融 指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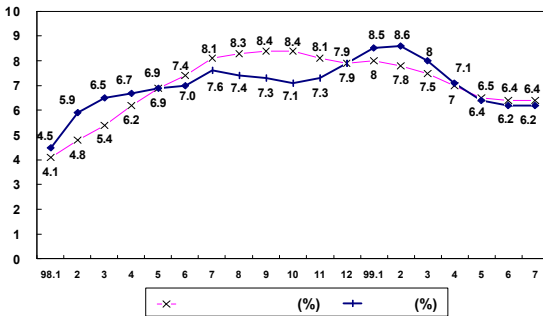


엔화는 99년 2/4분기 GDP가 0.2%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자 보험세에서 상승세로 반등함. 지난주 일본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실패후 그 해소에 따른 대규모 달러화 매도 등의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은 금주초 106엔대로 급락

(단위: p, %, 엔, 달러, 원)

	1997	1998				1999					
		Q1	Q2	Q3	Q4	5	6	7	8	9.13	
Dow Jones 주가지수	7908.25	8799.81	8952.02	7846.62	9181.43	10559.74	10655.15	10655.15	10914.13	11030.33	
국제 금리 (%)	미국국채(10년물)	5.750	5.670	5.440	4.440	4.650	5.63	5.96	5.92	5.97	5.91
	미국국채(30년물)	5.922	5.930	5.624	4.880	5.092	5.825	6.090	6.099	6.052	6.048
	연방기금금리	5.840	5.880	7.06	6.140	4.070	4.813	4.750	4.875	5.438	5.313
	LIBOR(3개월물)	5.812	5.711	5.719	5.312	5.076	5.067	5.328	5.343	5.503	5.510
	일본국채(10년물)	1.655	1.580	1.320	0.760	2.010	1.490	1.785	1.785	1.980	1.760
국제 환율	엔/달러	130.57	133.22	138.93	136.66	113.45	121.52	121.40	114.50	110.65	106.60
	달러/유로	-	-	-	-	1.1665	1.0406	1.0352	1.0710	1.0472	1.0419
	원/100엔	1087.82	1044.74	973.85	1023.93	1042.30	987.65	949.20	1038.56	1068.13	109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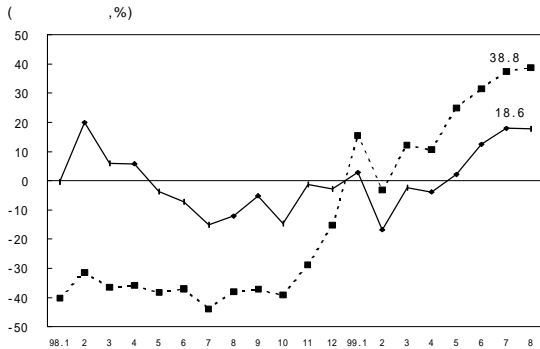
□ 雇 傭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계절적인 요인(농한기)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지만 경제활동인구도 동시에 감소하여 7월 중 실업률과 계정조정 실업률은 모두 6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1997	연간	1998				1999			
			Q1	Q2	Q3	Q4	Q1	Q2	6	7
실업률(%)	2.6	6.8	5.7	6.8	7.4	7.4	8.4	6.6	6.2	6.2
실업자 (만 명)	55.6	146.3	118.2	148.1	160.0	158.6	175.1	143.5	135.6	134.9
총취업자 (만 명)	2,104.8	1,992.6	1,971.0	2,024.4	1,997.1	1,984.6	1,910.5	2,030.1	2,060.4	2,055.8

□ 對外 去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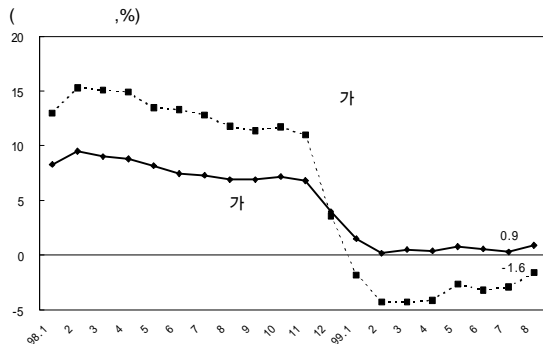
8월중 수출은 엔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과 유가상승에 힘입은 석유화학제품의 회복 등 수출여건 호조로 6월부터 연이어 10%대의 증가세를 보임. 수입은 국제유가 인상과 꾸준한 내수 증가로 늘어났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단위: 億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8	1999(전망치)
수출	960.1	1,250.6	1,297.2	1,361.6	1,332.2	893.1	1,333
수입	1,023.5	1,351.2	1,503.4	1,446.2	933.4	739.2	1,111
경상수지	-38.7	-85.1	-230.0	-81.7	405.6	154.9*	228
상품수지	-28.6	-44.4	-149.6	-31.8	416.3	178.5*	263
서비스수지	-18.0	-29.8	-61.8	-32.0	6.3	-7.1*	-6
소득수지	-4.9	-13.0	-18.1	-24.5	-50.5	-28.8*	-38
경상이전수지	12.8	2.2	-0.5	6.7	33.5	12.4*	8
자본수지	103.0	167.9	233.3	13.1	-39.9	-2.7	-
외환보유고 (가용외환보유고)	256.7	327.1	332.4 (294.2)	204.1 (88.7)	520.4 (485.1)	(647.8)	-

주: \*는 99년 7월까지의 누계치임

□ 物價



99년 8월중 소비자물가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 농림수산물 가격이 7월에 비해 38.9%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전년동월대비로 0.9% 오름.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집중호우의 여파로 지난달보다 0.7%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6% 내림

	1997	1998		1999							
		연간	11	12	3	4	5	6	7	8	
소비자물가	4.5	7.5	6.8	4.0	0.5	0.4	0.8	0.6	0.3	0.9	
생산자물가	9.6	12.2	11.0	3.6	-4.3	-4.1	-2.6	-3.2	-2.9	-1.6	
생활물가	6.0	11.1	10.4	5.7	1.8	1.9	2.6	2.4	1.9	2.8	
WTI 유가 (현물, \$/bbl)	18.36	14.44	13.14	11.40	14.59	18.43	16.58	19.13	20.33	21.98	

주: WTI 유가는 월말치이며, 1997년 수치는 1997년 12월 기준임